

이태준 <화관>의 상징성 연구

김 은 정*

차 례

- | | |
|----------------------|--------------------------------|
| I. 서론 | III. 족쇄의 상징으로서의 '화관' |
| II. 숭배의 상징으로서의 '화관' | 1. 배일현의 서사와 족쇄 상징으로
서의 '화관' |
| 1. 신부의 '화관'과 육체의 숭배 | 2. 족쇄 상징의 의미와 작가 의식의
변모 |
| 2. 고난의 '가시관'과 정신의 숭배 | IV.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이태준의 <화관>을 고대 '화관'의 두 가지 상징성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화관>이 보여주는 복합적인 세계를 '화관'의 상징성이라는 기제로써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본고는 <화관>의 상징성을 '신부가 쓰는 결혼 예식의 화관'의 모습과 '예수의 고난의 가시관'으로 형상화된 화관의 두 가지 모습으로부터 추출하였다. 이 두 가지 모습은 서로 상반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두 이미지 모두 '숭배의 상징'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상징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다음으로 본고가 추출한 ‘화관’의 상징성은 ‘족쇄’로서의 상징이다. 이 상징성은 악인형 인물인 배일현의 서사를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배일현이 임동옥에게 선물했던 시계나 반지의 상징성을 통해 이를 추출하였다. 본고는 이 물건들을 의미를 ‘돈의 족쇄’라는 상징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족쇄의 의미를 통해 ‘생활의 발견과 수용’이라는 이태준의 변모를 추출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점을 통해 본고는 <화관>이 불안정한 텍스트로 남은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주제어 : 화관, 숭배의 상징, 신부의 화관, 고난의 가시관, 족쇄의 상징, 돈, 생활의 수용과 발견

I. 서론

이태준이 발표한 13편의 장편소설들 중 <화관>은 다소 독특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먼저 작가 이태준이 첫 장편소설인 <구원의 여상> 이후 단 한 차례도 쉬지 않고 신문 연재소설을 발표하다가, 1937년 이 작품 <화관>을 마지막으로 한 차례 침묵기¹⁾를 가졌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침묵기가 중요한 것은 이후 발표된 작품(1939년 <딸 삼형제>)부터 이태준의 작품 세계가 확연히 달라졌기²⁾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기존 논의에서는 이태준의 전체 작품 경향을 다룰

1) 장편 『화관』(1937.7.29.-12.22)의 연재와 단편 「패강냉」(1938.1)의 발표를 끝으로 이태준은 잠시 침묵기를 가진다.

2) 이 점에 관한 논의는 졸고, 「이태준 장편소설 연구」(서강대학교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박현호, 「이태준 문학의 소설사적 위상」(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7), 송인화, 「이태준 소설 연구」(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9), 이해령, 「이태준 장편소설 연구」(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6), 김한식, 「이태준 장편소설의 서사 연구」(상허학회, 『이태준과 현대소설사』), 깊은샘, 2004 등 다양한 논자들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

때(특히 장편 소설을 중심으로) <구원의 여상>부터 <화관>까지를 제1기로 묶어서 작품 경향을 고찰하고 있다.³⁾

그러나 <화관>은 이태준 작품의 제1기에 발표되었던 <구원의 여상>이나 <제2의 운명>, <불멸의 함성>, <성모> 등의 작품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 시기 이태준 문학의 특징을 강한 계몽성으로 잡을 수 있다면, <화관>은 이들 작품에서 보이는 계몽성이 다소 약화된 형태를 보인다.

또한 이태준의 이후 작품, 즉 제2기 이태준 문학의 특징을 통속성으로 잡는다고 할 때, <화관>은 그 이후의 작품에 비해서는 약한 형태이긴 하지만 통속적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화관>은 1기와 2기의 특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작품이라 하겠다.⁴⁾

이러한 <화관>의 이중적 성격은 이태준 문학의 기본적인 특성이 모두 수용된 형태이며, 이는 <화관>의 독특한 서사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본고가 <화관>에 주목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중성의 부분이다.

본고는 이태준의 <화관(花冠)>이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과 '화관(花冠)'이 제시해 주는 신화적 상징성이 얼마나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가 하는 부분에 유의하여 <화관>을 다시 읽고자 한다. 본고의 읽기 과정은 <화관>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동욱의 성격을 중심으로 '화관'의 두 가지 상징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화 되는가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3) 이러한 이태준의 시기별 작품 분석에 대한 논의 역시 즐고, 『이태준 장편소설 연구』(서강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박현호, 『이태준 문학의 소설사적 위상』(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7), 송인화, 『이태준 소설 연구』(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1999), 김한식, 『이태준 장편소설의 서사 연구』, (상허학회, 『이태준과 현대소설사』) 깊은샘, 2004. 이해령, 『이태준 장편소설 연구』(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6) 등 다양한 논자들에 의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4) 김한식, 『이태준 장편소설의 서사연구』, 『이태준과 현대소설사』, 깊은샘, 2004년, 277쪽.

고대 신화의 상징성을 언급할 때 ‘화관’의 상징성은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난다. 즉 화관은 결혼식을 거행하는 가장 화려한 순간에 사용될 뿐 아니라, 사람이거나 동물, 희생양들이 제물로 바쳐질 때도 사용된다.⁵⁾ 그런 점에서 화관은 바로 화려함과 신성함의 상징인 동시에, 살해의 전주곡의 역할도 하고 있다. 화관의 이러한 이중성은 고대 신화에서뿐 아니라 그 이후 비극의 극 무대에서도 변치 않는 상징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흔히 비극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생각하는 오해, 인정, 이중적 의미의 이야기들은 화관이 지니고 있는 이중적 의미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⁶⁾ 그러나 이러한 이중성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주목’을 받는 대상이라는 점, 즉 숭배의 상징이라는 동일한 자질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신부의 화관이나 희생 제물의 화관 모두 신성함을 지녔다는 점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와는 판이하게 다른 화관의 상징성이 있다. 그것은 화관의 시초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는 상징이다. 신화에 등장하는 최초의 화관은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에게 선물한 것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화관은 신들이 가장 의심하는 존재에게 주는 위협과 구원의 의미가 담긴 선물이라 볼 수 있다. 그 화관은 제우스 자신이 오랫동안 프로메테우스를 결박 했던 족쇄의 형벌을 보상해주는 것이었고, 몸을 조이는 차가운 금속인 족쇄는 나뭇가지와 꽃으로 엮인 화관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신화에서의 변형은 그 반대의 변형도 가능하게 한다. 즉 화관은 여러 해가 흐른 뒤 아름다운 잎과 꽃잎이 떨어져 나가

5) 이 점은 고대 신화에서 희생 제물에게 화관을 씌우거나 띠를 두른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6) 로베르토 칼라소, 이현경 옮김, 『카드모스와 하르모니아의 결혼』, 동연, 1999, pp.136-139. 이 책에서는 신화에서부터 비롯된 화관은 신들의 상에 쓰는 화관, 제물로 희생되는 여자와 신랑 신부가 쓰는 화관, 경기에서 이긴 운동 선수를 위한 화관, 뛰어난 시인이나 전사를 위한 화관, 연희의 흥을 돋워주기 위한 화관 등 화관은 도처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문학은 모두 그 화관 위에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필연적으로 장식되지 않은 차가운 족쇄의 원형만이 남는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왕관, 목걸이, 화관은 똑같은 모습이고 종종 서로 모습이 바뀌어 여러 가지 예술 작품에 상징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⁷⁾ 즉 여기에서 보여 주는 ‘화관’의 상징성은 바로 ‘족쇄’로서의 의미이다.

이렇게 신화에서부터 보여 주는 화관의 상징성을 본고는 이태준의 <화관>을 다시 읽는 데에 이용하고자 한다. 신화의 두 가지 상징성을 통해 이태준의 <화관>을 다시 읽을 때, <화관>의 이중적 의미가 보다 면밀히 드러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본고의 <화관> 읽기는 두 가지 과정에서 진행된다. 먼저 고대 신화의 상징성에서 비롯된 결혼식과 제물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 <화관> 읽기이다. 이 경우 여주인공 ‘동옥’을 대상으로 한 숭배의 의미가 부각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화관의 변형된 의미에 주목하여 <화관>을 읽는 방법이다. 이것은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의 족쇄가 화관으로, 혹은 화관의 형태가 족쇄의 의미로 변형되었다는 언급에 기대 분석이다. 여기에서는 <화관>의 숨겨진 의미인 ‘돈’에 대한 ‘족쇄’로서의 의미가 파악될 것이다.

II. 숭배의 상징으로서의 ‘화관’

1. 신부의 ‘화관’과 육체의 숭배

기존의 <화관> 연구에서 주로 논의된⁸⁾ 것은 동옥의 ‘성장 이야기’로

7) 위의 책, pp.139-142.

8) 화관에 대한 기존 논의는 황순재, 「이태준의 소설 <화관>론 - 현실대응 논리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50집, 부산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1997. 김주리, 「해변과 항구-바다의 근대적 공간 표상과 이태준의 <화관>」, 『한국현대문학연구』 28집, 2009. 김종균, 「이태준 장편소설 <화관>연구」, 『어문논집』 34집, 1995. 최현희, 「이태준의 <화관>연구-좌절된 사랑과 왜곡되는 육체의 의미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3집, 2004. 김주리, 「식민지 시대 소설 속 해수욕장의 공간표상」, 『인문

서의 <화관>이다. 이것은 전문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임동옥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을 이루어 간다는 <화관>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특징에서 추출한 것이다.

<화관>에 드러난 미래에 대한 임동옥의 고민은 ‘사랑’과 ‘일’로 대별할 수 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자면 ‘연애와 결혼을 통해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싶다는 세속적 욕망과 지식 청년의 일원으로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싶다는 이상 실현의 의지 사이의 갈등’⁹⁾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갈등은 모두 ‘화관’의 기능 중 승배의 상징에 부가된 갈등이다.

임동옥은 완전한 사랑이란 운명적인 만남, 정신적 결합, 사랑과 사회적 이상의 실현이 일치하는 순간에만 성취되는 것이라 여긴다. 그런 의미에서 파악한다면 <화관>의 서사는 이러한 완전한 사랑에 대한 이상이 좌절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먼저 1장 ‘여름밤의 꿈’에서 임동옥은 어머니에게 이상적인 결혼 상대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고 질문한다. 그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은 ‘흠이 없는 한 덩어리’의 결합이며 이것은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이 상상 속의 일이 현실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답변은 ‘사주 궁합과 같은 운명론에 순응하며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다. 그 순간 임동옥은 어머니가 살아온 구세대의 삶 자체에 반감을 느끼며 사주 궁합과 같은 운명론을 ‘악습’이라 생각하게 된다.

‘왜 우리 어머니에겐 이만한 쉬운 비판이 없으신가? 사주니 궁합이니 다 남존여비 시대에 된 것이다. 우린 그런 악세대의 제물이 되어 버렸지만 너희까지 그래서 안된다 하고 딸 자식도 잘 되되, 인간으로 잘 되도록 바라고 지도해 주시는 현명이 왜 없으실까. 육신이 굶고 배고플 때

연구』 58집, 2010. 등이 있다.

9) 엄상희, 「1930년대 장편소설의 멜로드라마적 구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47쪽.

는 나타나시는 어머니의 손길, 그러나 정신이 그럴 때에는 아무리 불러도 나타날 줄 모르시는 어머니의 손길! 오늘 조선의 딸들은 대부분이 정신상 고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동옥은 엇저녁에 어머니에게서 결별하는 슬픔을 느끼듯이 불현 듯 깨달았다. ‘고아! 보호를 받아야 할 시대부터 보호가 없어 저 혼자 꾸러나가야 할 고독한 운명야. 모든 걸 저 혼자 꾸러나가야 할...’¹⁰⁾

자신이 생각하는 완전한 사랑의 이상과 어머니 세대의 결혼관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통해 동옥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결국 구시대의 인습에 따라 자아를 부정하게 되는 삶을 선택할까 봐 두려워하게 된다.¹¹⁾ 그리고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녀는 자유연애를 통한 결혼에 집착하게 된다. 결국 그녀가 이후의 서사에서 노출 시키는 결혼관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억압과 여성의 자율적 삶을 양립시킬 수 없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불안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기제에 의해 임동옥은 완고한 도덕주의자의 모습으로 자아를 형성하면서 근대적 삶을 실현하는 결혼을 꿈꾸는 이상주의자로서의 이중적 모습을 갖추어 간다.

2장 ‘세 화살’에서는 임동옥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운명적 사랑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허약한 논리인가를 보여 준다. 임동옥은 운명적인 상대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싶다는 소녀적 감성과 인생을 설계하는 사교의 장에서 미래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는 다소 엇갈린 기대를 안고 친구 황정희가 초대한 송전의 별장으로 간다. ‘송전’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동옥은 네 명의 새로운 인물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 새로운 남자들을 만남으로써 임동옥이 가진 결혼관은 막연한 기대 정도의 형태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확립되어 간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그것이 새로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질들을 +요인으

10) 이태준, 『화관』, 깊은샘, 2001, 23쪽. 이하 인용은 이 책으로 하며 책의 페이지만 명시한다.

11) 임상희, 앞의 논문, 49쪽.

로 하여 그녀의 이상적인 결혼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새롭게 만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요인들을 통해 그 자질들은 빼면서 완고한 도덕적 형태를 갖추어가는 모습이라는 점이다.

해수욕장은 삼방과는 반대로 건장한 젊은이들만이 들끓을 것 같았고 그 들끓는 속에는 누가, 황정희 이외에 누가 자기를 기다리거나 하는 것도 같았다. (『화관』, 26쪽)

판스에 정통한 남자, 농민문제에 정통한 남자, 사회는 어느 남자를 더 요구할 것인가, 어느 남자를 더 우대할 것인가(『화관』, 29쪽)

위의 인용과 같이 제일 처음 임동옥이 삼방에서 막연한 연애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남자는 단순히 삼방의 병자들과 달리 건장한 육체를 가진 젊은이 정도였다. 그런 점에서 판스에 정통한 미지의 인물(황재하)에게 가지는 감정 역시 평소 가장 우호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사촌 동석오 빠와 견주어 생각할 만큼 호의적이었다.

‘세 화살’에서 세 명의 남자가 임동옥의 이상형에서 멀어지는 과정은 마치 서바이벌 게임의 형식과 같이 진행된다. 가장 먼저 임동옥이 꺼려하게 되는 남자는 임동옥이 기본적인 이상으로 여기는 ‘건장한 육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김장두이다. 김장두의 고백을 듣고 불쾌해하는 임동옥이 가장 먼저 만난 인물이 황재하라는 것은 김장두와 황재하의 서바이벌에서 황재하의 우세가 확실해질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황재하가 임동옥의 이상형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은 우선 뛰어난 외모와 건장한 육체, 그리고 (막연하게 꿈꾸던) 로맨스의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 운명적 사건 등이다. 그러나 임동옥은 황재하와의 대화를 통해 그가 의지력의 부분에서는 상당히 허약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부분은 필연적으로 황재하와 배일현과의 서바이벌을 예견하게 한다. 배일현이 지니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바로 ‘의지력’이며, 이것은 황정희

가 배일현에게 반한 요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황재하와 배일현의 대결에서는 배일현의 승리를 짐칠 수 있다.

그러나 동옥의 입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결혼 대상(친구의 약혼자)인 배일현의 애정 공세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도덕관’과는 가장 배치된다. 그녀가 배일현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바로 도덕적인 문제인데, 즉 배일현이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도덕관을 가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점은 이후 자신을 향한 배일현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모두 도덕적 잣대로 재단하여 ‘비도덕적 것’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도덕적인 문제로 배일현이 심각한 -자질을 보유했다면, 이 점에서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인물은 박인철이라고 할 수 있다. 동옥과 배일현의 대화가 주로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논의였다면, 박인철과 동옥의 대화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시대의 도덕에 관한 것이다. 박인철이 제시하는 결혼관과 인생관에 동옥이 수긍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잣대가 개인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박인철에게로 향하는 동옥의 사랑은 지금껏 자신이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배우자의 조건 중 -자질이라고 생각하여 배제한 자질을 박인철이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신이 생각하는 개인적 도덕성을 넘어서는 시대적 도덕성을 지닌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인철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동옥은 박인철 역시 이상적 결혼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자, 이러한 박인철이 남의 첩과 추한 관계를 맺은 박인철이 잘못하면 본부를 죽인 간부라는 죄명으로 무기 징역을 살는지 까딱하면 사형이라도 받을지 모를 박인철일 난 의연히 사랑할 것인가?’ 함을 자기 자신에게 물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처녀 동옥은 무엇보다 인철이가 이미 한 여자를 육체로써 알았다는 것이 꺼림칙하다. ‘남자들이 우리 여자

에게 정조를 요구하는 똑같은 감정과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이다(『화관』, 254쪽)

결국 박인철 역시 이상적 결혼 대상자에게 제외되면서, 이상적 ‘결혼관’ 확립을 향해 나아가던 임동옥의 서사는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초점 대상이 되었던 동옥의 자질에 대해서도 다소의 변화를 가져 온다.

<화관> 전반부의 초점 대상인 동옥이 지닌 가장 두드러지는 자질은 육체적인 아름다움이었다.

동옥은 눈을 그저 감은채 수건을 들어 이미를 닦는다. 아름다운 이마다. 눈을 치켜 뜨더라도 잔주름 한오리 그어지지 않은상 싶다. 그러나 동옥이가 아름다운 것은 이마만에 있지않다. 저녁에 보더라도 아침이슬 밭에서 보는 듯 늘 정신이 나게 신선한 눈의 광채, 처음 본 사람이라도 동옥이라 얼른 잊혀지지 않은 것은 그 눈매 때문인듯 하였다. (『화관』, 12쪽)

이렇게 동옥의 아름다움은 서술자의 서술 대상에 대한 묘사부터 시작하여 동옥이 만나게 되는 모든 남성 인물들이 동옥을 숭배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미인’, ‘제일 이쁜 애’, ‘동체미’ ‘달빛 실린 흰 꽃송이 같은 얼굴’ 등 다양하고 직접적인 형태로 동옥의 육체적 아름다움이 제시된다.

“동옥인 아마 올해 시집가려나봐” 하고 놀리신다. 동옥은 부끄러운만큼 유쾌하기도 하다. 동옥은 더 아름다웠다. 살결 맑은 얼굴에 달뜬 부끄러움과 즐거움은 복사꽃빛으로 괴여올랐다. 게다가 불빛이 폭 배이는 오렌지빛 저고리며 금지로 짙 화관은 동옥을 여왕처럼 드러냈다. 부엌으로 들어갔더니 사내아이 같은 선길이란 동무는 짝 끌어안고 뺨에 입을 다 맞추었다.(『화관』, 299쪽)

위의 인용은 동옥의 아름다움을 가장 선명하게 묘사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동옥의 아름다움이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라도 감탄을 금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움은 바로 육체적 아름다움에 국한된 것이며, 그 아름다움에 가장 어울리는 모습은 바로 ‘신부’의 모습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때 동옥을 향한 감탄은 바로 ‘화관’이 상징하는 ‘승배’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승배는 육체적 아름다움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승배가 극치에 달하는 순간 동옥의 인식은 시대적인 것으로 옮겨가게 된다. 즉 자신이 이끌어 가야 할 자기 인생의 중심은 ‘사랑’이 아니라 ‘일’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2. 고난의 가시관과 영혼의 승배

‘나에겐 무슨 일이 차례일까? 인봉일 맡어 가지구 감당해 못나간다면?’하는 걱정이 없지 않다. 아니다! 왜 감당해 못 나가긴? 하면 된단 신념을 갖자! 이제부터 하는 일은 인봉이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벌써 신속이도 위하는 일이 된 게 아니야? 화관! 이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시관일는지 모른다? 끝까지 쓰고 나가면 거기엔 정말 화관이 내릴는지 모른다. 한 남편을 위한 신부로서의 화관보다 좀 더 많은 사람을 위해 시대의 선수로서 세기의 청춘으로서 민중이 주는 시대가 주는 화관을 쓰자! (『화관』, 301쪽)

위의 인용은 지금까지 인생의 이상을 결혼을 위한 ‘이상적 배우자’의 모습에서만 찾던 동옥이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남자들을 -자질로 제외시켜 가면서 결국 자신의 이상적인 삶을 자유연애를 통한 결혼에서가 아니라 시대적 아픔을 공유하는 희생양의 모습에서 찾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이태준이 ‘화관’의 의미를 결혼과 희생제의의 두 가지 모습으로 모두 파악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작품 <화관>의 표제와 기본 모티프가 되었다고

도 볼 수 있다.

특히 동옥은 졸업식 행사에서 우연히 ‘화관’을 뽑게 되고, 이것의 의미를 다른 인물들이 해석하는 ‘행복한 결혼’이 아니라 ‘예수의 가시관’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옥의 가치관이 행복한 결혼을 최고의 욕망으로 여기던 개인적인 삶에서 사회와 민족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대의를 실천하는 계몽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화관>이 이태준의 1기 작품에 해당하는 애정의 구도와 계몽의 플롯을 함께 가진 작품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한다.¹²⁾

그러나 ‘화관’ 자체의 상징성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애정의 구도에서 상징화된 ‘신부의 화관’과 후반부에 형성되는 계몽의 플롯에서 제시된 ‘희생의 화관’은 동일한 의미인 숭배의 대상으로 상징화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신부의 화관’이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이 강조되며 육체적 의미에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면, ‘가시관으로서의 화관’은 고귀한 희생이 강조되며 정신적 의미에서 숭배의 대상이 된다는 차이를 지니고는 있으나, ‘숭배의 상징’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이 점은 동옥의 성격을 통해서도 더욱 확연하게 나타난다. 동옥이 ‘완전한 사랑’을 탐색 대상으로 하였을 때 일기장에 적은 사랑의 계율은 도덕적인 가치를 이상으로 하고 있는 이상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그녀의 지나친 도덕주의적 성향은 결국 세속적 욕망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도덕적 이상만을 따르는 것으로 몰아갔고, 결국 자신의 삶과 가시관을 쓴 예수의 희생적 삶과 동일시함으로써 도덕적 이상을 절

12) 기존의 논의들은 작품 전반부에 동옥이 형성하고 있는 애정의 구도와 후반부의 계몽의 주체로서의 역할이 분리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동옥이 ‘완전한 결혼’을 탐구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벗어나 ‘시대의 이상’을 실현하는 자아로 발전한 것에 대해 동옥의 성장 서사로 <화관>을 파악하였다. 특히 동옥의 이러한 변화를 결정적 입사의 형식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황순재, 「이태준의 소설 『화관』론-현실대응 논리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인문논총』 50집, 1997)

대화하고 있다.¹³⁾ 이런 점은 동옥의 서사에서의 ‘화관’이 그 탐색 대상이 ‘사랑’이거나 ‘일’이거나 간에 숭배의 상징이라는 점과 함께 ‘화관’의 상징적 삶을 자신의 삶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7장 ‘새 정열’ 이후의 서사에서 동옥은 모든 열정과 의욕을 ‘사랑’이 아닌 ‘사회적 자야’의 실현에 쏟게 된다. 원산의 보통학교 교사로 부임한 동옥은 학생들에게 ‘인생의 교사’가 되겠다는 의욕을 통해 이상적 사랑에 대한 열망과 실망¹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다. 이렇게 동옥이 가진 열정의 변화와 함께 서사는 더 이상 동옥의 아름다운 육체에 대해서는 진행되지 않는다. 원산에서의 동옥은 아름다운 처녀로서의 동옥이 아니라 교사로서의 동옥이며, 민중의 아픔을 나누며 힘이 되고자 하는 인물이다. 동옥의 원산 생활에서 강조되는 것이 ‘고난’과 그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이라는 점은 ‘희생의 가시관’이라는 ‘화관’의 또 다른 상징성을 보여 준다.

원산에서 부각되는 동옥의 성격은 희생양으로서의 국면이다. 동옥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여 번 돈을 인봉에게 부쳐주고, 자신의 용돈으로 남은 아주 적은 금액마저 학용품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학용품을 사 준다. 또한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하는 원산학교 교원들과는 달리 돈 때문에 팔려가는 금순이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애쓰는 모습 등은 예전에 동옥이 지니고 있었던 육체적 아름다움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순결한 희생양으로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순결한 희생양으로서의 플랫폼을 형성해갈 때 동옥이 가진 완고한 도덕성이 다소 약화되는 형태를

13) 엄미옥, 앞의 논문, 55쪽.

14) 이 부분은 엄미옥은 이상적 사랑에 대한 환멸이라고 분석하였는데, 동옥이 가지는 감정은 이상적 배우자를 찾던 이상적 결혼에 대한 열망에서 시대적 사명에 대한 열망으로 형태가 바뀌었을 뿐 사랑에 대한 환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이후 박인철과의 만남이 다시 이루어지는 부분을 통해서도 추론할 수 있다. (엄미옥, 앞의 논문, 52쪽.)

보인다는 점이다. 이것은 금순을 구하기 위해 융통한 자금이 배일현이 선물한 백금 시계를 맡긴 돈이라는 점이나, 이 점을 배일현에게 따로 알리거나 시계를 다시 돌려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이것은 이전에 동옥이 사정이 어려운 인봉에게 배일현의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했을 때와 비교한다면 확연한 변화이며, 결벽증에 가까웠던 도덕성이 약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는 부분이다.

동옥이 가진 희생양으로서의 성격과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성격이 합일되는 지점은 백인철과 재회 부분에서 잠깐 드러난다. 감옥에서 나와 동옥을 찾아온 백인철에게 동옥은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고, 힘들지만 그와 함께 시대의 청년으로서의 길을 갈 것을 약속한다. 이 때 동옥은 아름답고 순결한 처녀의 모습과 시대적 사명을 짊어질 희생양의 두 가지 모습을 함께 보여 준다. 그러나 동옥과 인철이 약속한 그 길은 표제가 암시하는 대로 ‘아득한 봄날’의 길일 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길이다.

이 점은 먼저 백인철이 감옥에서 고심하며 연구했다는 사업 계획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백인철의 사업 구상은 그가 그토록 비판했던 ‘정어리 공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자본이 필요하면서도 현실성은 거의 없는 사업이다. 그는 막연하게 출판 사업을 해야만 시대의 사명을 다 하는 청년이 되고, 계몽의 길로 나아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백인철은 그 사업을 추동할 구체적 능력도, 자본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결국 배일현에게 자본을 구하러 간 동옥의 시도까지 무위로 끝나자 막연한 시대적 사명감만으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이들 연인의 미래는 아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서사는 마무리된다. 이 점은 또한 앞으로 동옥이 가야 할 길이 이전에 동옥이 걸었던 길보다 더 험난한 길이 될 것임을 보여 준다.¹⁵⁾

또한 이 점을 ‘화관’의 상징성으로 파악할 때 동옥이 보여 주는 화관의

15) 이런 소설에서 플롯의 본질적인 요소는 모험이 된다는 점은 김한식에 의해 논의된 바 있다. (김한식, 『이태준 장편소설의 서사 연구』, 283쪽.)

모습 중 ‘희생양으로서의 화관’과 동일한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희생양으로서의 모습이 더욱 부각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정당화될 수 있는 고난이 존재하여야 하며, 그 고난을 힘겹게 헤쳐 나가나 결국은 희생되고 마는 비극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 ‘희생양으로서의 화관’이 보여줄 수 있는 전형적 모습이기 때문이다.

하늘은 별 하나 보이지 않는다. 동옥이가 다시 파고다 공원에 들어설 때는 이슬비조차 또 내리기 시작한다. 어둠과 비에 젖는 시커먼 백양나무 그늘 아래에는 인철이가 찢어진 지우산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다. 동옥은 악이 받치어 그의 앞에 선 채 한참이나 아무 말도 내지 못한다. (『화관』, 358-359쪽)

<화관>의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위 예문은 <화관>이 행복한 결말로 끝맺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¹⁶⁾ 기후 상징이 보여주는 장마철의 어둠과 비에 젖은 공원은 시·공간적으로 탈출구 없이 답답하게 막혀버린 현실을 비유하고 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하늘은 이 장의 제목인 ‘아득한 봄’과 함께 이들이 가야 할 미래가 얼마나 어두운가를 보여준다.

이렇게 <화관>의 상징성 중 숭배의 상징으로서의 ‘화관’의 두 가지 모습은 그 대상을 ‘사랑’으로 할 때는 동옥의 성장 서사로 작동하게 되고, 그 대상이 ‘시대의 사명’으로 옮겨갈 때는 비극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희생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화관’이 상징하는 두 가지 복합적 양상을 통해 <화관>의 혼합 양상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¹⁷⁾

16) <화관>은 <청춘무성>과 같이 행복한 결말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해서는 윤지영, 『이태준 장편소설의 이념적 지향연구』, 숙대석사논문, 2003, 35쪽은 재고되어야 할 논거이다.)

17) <화관>의 혼합 양상에 대해 김한식은 통속의 서사에 계몽의 내용을 담으려는 시도가 육화되지 않아 서로 조화되지 못한 결과라고 파악하고 있다.(김한식, 앞의 논문, 295쪽.)

Ⅲ. 족쇄의 상징으로서의 ‘화관’

1. 배일현의 서사와 족쇄의 상징으로서의 ‘화관’

<화관>의 서사가 여러 가지 혼란을 주는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악인으로 형상화된 배일현의 서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이태준의 장편소설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악인은 그 인물의 행동이나 계략만을 보여줄 뿐 그 행동의 의미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화관>의 경우 악인형 인물인 배일현의 생활과 생활 태도가 상세하게 묘사되는 두 장 -꿈의 일기, 알수록 불행한 것-을 통해 그의 심리 상태와 행동의 의미를 장황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남성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박인철에게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는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이 두 장의 배치로 인해 <화관>은 임동옥과 배일현의 두 인물이 초점화되는 작품이 되고 있다.

특히 배일현은 동옥이 자신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도덕적 흠결이라 할 수 있는, 즉 가장 -자질이라 할 수 있는 황정희와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난 후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모습은 배일현이 가진 동옥을 향한 열정이 진심이며,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만큼 순정적인 남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배일현의 서사를 통해 해석될 수 있는 ‘화관’의 의미 역시 앞서 살펴본 상징성 논의에서와 같이 육체적 숭배에 대한 것이 먼저 진행된다. 배일현이 임동옥에게 느끼는 사랑의 감정이 처음 발현된 때의 화관은 ‘신부로서의 화관’ 즉 육체적 숭배의 대상으로서의 상징성을 지닌다.

신비 이것은 육체 이상의 것으로 육체 아닌 아름다움이였다. 일현은 여성에게서 육체 이상의 것을 감각하는 신경이 그만 마비되어 버린 것이다. ‘나는 육체 이상의 동옥을 어느 틈에 잃어버린 것이다. 동옥을 육체 이상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내 자신도 불행이거니와 육체 이상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동옥이도 불행할 것은 물론이다. 난 그를 누구보다도 행복되게 해 줄 수 있노라 몇 번이나 맹서하지 않았던가?(『화관』, 221쪽)

위 인용은 배일현이 자신이 차지할 수 없는 임동옥의 육체를 대신하여 수많은 기생들과 성관계를 가진 후 더 이상 자신에게 임동옥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마비된 것이 아닐까 염려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염려는 바로 배일현이 가진 동옥을 향한 숭배 조건이 육체에 대한 숭배를 넘어설 것이라는 점을 암시해 준다. 또한 배일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으로 서사가 이어지게 하고, 이러한 반성 역시 독자가 배일현의 심리에 동조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동옥에게만은 하룻밤 지낸 뒤에도 ‘다만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있을 것은 있고 없을 것은 없는 남자 아닌 육체일 뿐’이 아니라 그 육체를 그 이상 아름답고 그 이상 신비롭게 하는 무엇 그것은 코로 느낄 수 있는 향기라 할까. (중략) 가장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투시해 찾을 것이 없고 시력으로 찾을 것이 없으니 영혼에 부딪치는 것이 저쪽의 영혼이었다. (『화관』, 325-326쪽)

반성 이후 이어지는 배일현의 행동은 원산으로 동옥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것은 자신이 단지 동옥이 가진 육체의 아름다움만을 사랑한 것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확인에서 배일현은 동옥이 가진 ‘영혼의 향기’를 느끼게 되며 더욱 열정적인 사랑을 깨닫게 된다.

배일현이 동옥을 향해 느끼게 되는 이 사랑의 과정은 앞서 살펴본 ‘화관’의 상징성 중 숭배의 상징으로서 의미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배일현이 처음 느낀 사랑의 감정은 바로 동옥의 육체적 아름다움에서 오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신부의 화관’이 상징하는 것과 일치한다. 이후 동옥이 ‘시대적 사명’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상정하고 원산에

서 교원 생활을 할 때의 ‘화관’이 가진 상징성은 ‘희생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배일현에 의해 ‘영혼의 향기’로 형상화되는 부분이다.

이 점은 <화관>의 텍스트에서 동옥을 초점 대상으로 하여 서사가 진행되는 부분에서뿐 아니라 배일현이 초점 대상이 되어 서사가 진행되는 부분에서도 ‘숭배의 상징’으로서의 ‘화관’의 두 가지 모습이 모두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숭배의 상징으로서의 ‘화관’과는 판이하게 다른 화관의 모습은 ‘족쇄의 상징’으로서의 화관이라 할 수 있다.¹⁸⁾ <화관>에 나타나는 ‘족쇄의 상징’으로서의 화관의 모습은 주로 배일현과 동옥의 관계에서 형성되고 있다.

그때 동옥은 배일현의 과자 상자를 끄렀다. 끄르고 보니 속에는 과자뿐이 아니었다. 반지갑보다는 훨씬 큰 새까만 가죽지갑이 나왔다. 열어 보니 반짝반짝한 유리알들이 타원형으로 돌아 붙은 조그만 손목시계였다. 시계는 백금이요 금강석이요 또 비싼 회사의 것이었다. 관거리로 가지고 가서 전당을 잡히니 일백 오십 원이나 주었다. (중략) 동옥은 싱싱해진 금순을 볼 때마다 자기도 싱싱해지는 듯 기운이 났다. 그러나 금순이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기쁘지만은 않다. 배일현의 시계를 받은 것이 되었으니 꺼림칙한 그런 기분 때문에 무리를 헤가며 일백 오십 원의 돈을 만들어 그 시계를 찾아서 보내줄 성의는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또

18) 고대신화에서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에게 선물한 것에서 ‘화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즉 신들이 가장 의심하는 인간에게 주는 위협과 구원의 의미가 담긴 선물이 화관이라는 것이다. 그 화관은 제우스 자신이 오랫동안 프로메테우스를 결박했던 족쇄의 형벌을 보상해 주는 것이었고, 몸을 조이는 차가운 금속인 족쇄는 나뭇가지와 꽃으로 엮인 화관으로 변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화관은 여러 해가 흐른 위 아름다운 잎과 꽃잎이 떨어져 나가 필연적으로 장식되지 않은 차가운 족쇄의 원형만이 남는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왕관, 목걸이, 화관은 똑같은 모습이고 종종 서로 모습이 바뀌어 여러 가지 예술 작품에 상징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여주는 ‘화관’의 상징성은 바로 ‘족쇄’로서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로베르토 칼라소, 이현경 옮김, 『카드모스와 하르모니아의 결혼』, 동연, 1999, 139-142쪽.) 이 점에 대해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런 경과를 배일현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니까 꺼림칙한 것은 꺼림칙한대로 그냥 속에 품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화관』, 329쪽)

위의 인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배일현이 동옥에게 한 첫 번째 선물이며, 동옥이 결과적으로 거부하지 못했던 선물은 바로 ‘시계’이다. 이 시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관이 변형되어 나타나는 예술적 형상물이다. 즉 여기에서 보여주는 시계의 상징은 바로 ‘화관’의 또 다른 상징성인 ‘족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외의 사나이로 나보다 한결음이라도 더 동옥씨에게 가까이 나서는 사나이는 누가 있나 두고 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수단이라도 애끼지 않을 것입니다. 동옥씨는 고독하고 말 것입니다. 동옥씨 주위에는 이 배일현 밖에는 없게 될 것입니다. (『화관』, 129-130쪽)

쌓자, 오직 성을 올려 쌓자. 귀먹은 노예와 같이 수굿하고 성을 쌓자. 멀리 여왕의 돌레를 둘러막자. 다만 한 성문을 내이고 그 성문의 열쇠를 내 손에 잡는 날을 기다리자.(『화관』, 186쪽)

이렇게 배일현이 선물한 ‘시계’가 족쇄의 의미로 상징화되듯이 배일현이 동옥에게 가진 기본적인 자질은 바로 동옥을 자신의 소유물로 가두고자 하는 속박적 성향이다. 이러한 점에서 배일현의 성향 자체가 바로 ‘족쇄’의 의미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배일현이 동옥에게 주고자 하는 마지막 선물은 ‘반지’이다. 이 역시 앞서의 신화의 상징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족쇄’의 의미를 띠며, ‘화관’의 족쇄로서의 상징성을 지닌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게 내 몸을 파는 게 아닌가?’ 동옥은 손만이 떨리지 않는다.(중략)
“전 십 만원의 돈보다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걸 함께 받아주실 줄 압니다”

하면서 조끼 호주머니에서 금강석이 번쩍하는 반지를 꺼내는 것이다. “제가 오늘을 기다린지가 오래입니다” 하면서 일현은 반지채로 주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끼워주려고, 또 동옥이가 으레 허락할 줄을 믿는 듯이 서슴지 않고 턱 동옥의 왼편 손을 잡는 것이다. (『화관』, 357-358쪽)

배일현에게서 ‘시계’를 선물받는 것이나 배일현이 동옥에게 거리낌없이 ‘반지’를 내미는 것 모두 임동옥이 ‘돈’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임동옥에게 ‘족쇄’는 반지와 시계로 변형되어 나타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은 바로 앞서 언급했듯이 <화관>이 이태준 초기 작품들과 달라지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구원의 여상> 등에서 이어지는 이태준의 초기 장편들에서 주 인물이 지닌 도덕적 완결성이 결국은 ‘돈’의 문제¹⁹⁾를 극복하거나 초월하게 만들었던 것과는 달리 <화관>에서는 ‘돈’의 필요성만을 알게 되는 것으로 작품이 끝맺게 된다.²⁰⁾

물론 동옥이 배일현이 내미는 반지를 거부하고 배일현의 ‘소절수’를 찢고 나오는 행위는 바꾸어 말하면 배일현이 끊임없이 채우기를 원했던 ‘족쇄’를 거부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역시 이태준 초기 장편의 요소와는 그 플롯이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²¹⁾

2. ‘족쇄 상징’의 의미와 작가 의식의 변모

<화관>에서 보여주는 족쇄로서의 상징성은 “화관의 ‘족쇄 상징’에는

19) 기존의 이태준 작품들에서는 심지어 ‘돈’의 소유 여부에 따라 선/악이 구분되기도 했다.(줄고, 박사학위논문)

20) 이것은 악인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배일현에게는 그 어떤 불행도 일어나지 않으며, 임동옥과 박인철 모두 ‘돈’의 필요성만을 알게 되는 것으로 작품이 완결되는 것에서 드러난다.

21) <구원의 여상>부터 이어지는 이태준의 장편소설에서는 끊임없이 등장하는 ‘돈’을 소유한 악인형 인물이 꾸며 놓은 ‘함정’에 여주인공들이 빠지는 플롯으로 설정되어 있다.

반드시 속임수가 내포되어 있다.”²²⁾는 신화의 상징성과도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배일현이 임동옥을 소유하기 위해 계획한 속임수는 작품 초반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황정희의 핑계를 대며 동옥을 삼방에서 석왕사까지 데리고 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남자 배우들을 동원하여 동옥의 자존심을 꺾어놓기 위해 거짓 구혼극을 벌이는 일까지 배일현의 서사에서 임동옥과의 연관성은 범박하게 요약하자면, 동옥을 차지하기 위한 속임수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

배일현은 치밀한 계획과 엄청난 자금을 들여 오로지 동옥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는 ‘욕망’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그 욕망의 집약적 형태가 바로 작품의 마지막 순간에 배일현이 동옥에게 내미는 ‘반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반지’를 거부하는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족쇄’에 대한 거부일 뿐 아니라 더 이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의미 또한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 되는 것은 ‘돈’의 소유자 일뿐만 아니라 속임수의 주체인 배일현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이다.

시뻘겑던 배일현의 얼굴은 하얗게 질린다. 저쪽의 절망을 보는 동옥의 얼굴도 하얗게 질린다. 소절수 봉투를 든 손이 와들와들 떨린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원산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불간섭으로 주실 순 없으신지.” “물론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어떻게 쓰시던 간섭치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이 내 돈인 이상 내게서 나갈 때에는 가치가 있어 나가야겠습니다. 난 십 만원을 휴지로 버리는 건 아니올시다.” (『화관』, 358쪽)

22) 아프로디테의 띠 속에 속임수가 섞여 있었듯이 <프로메테우스의 화관>에도 극단적인 도전에 대한 속임수가 눈에 띈다. 아프로디테의 띠처럼 화관은 필연성의 족쇄이다. 하지만 이제 꽃잎으로 분해되고 아름답게 변형된 그 족쇄는 부드럽게 장식이 된다. 아름다운 외형의 베일, 그 속에는 필연성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사람. 처벌을 피할 길을 찾는 사람의 모험이 숨어 있다.(로베르토 칼라소, 앞의 책, p.140)

위와 같이 악인형인 배일현에 대해 서술자의 태도는 다소 동정적이며 이것은 “저쪽의 절망을 보는 동옥의 얼굴도 하얗게 질린다”와 같이 동옥의 공감까지 이끌어낸다. 그리고 배일현이 역설하는 ‘돈’의 가치 역시 충분히 독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게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돈’에 대한 작가 이태준의 태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먼저 예외적으로 배일현이 서술자가 된 서사가 진행됨으로써 <화관>의 남성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박인철과 독자의 거리보다, 적대적 인물인 배일현과 독자의 거리가 더 가까운 거리로 형성되거나, 둘 사이의 우열이 점점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데에서 그 시발점을 찾을 수 있다.

도덕적 흠결성 부분에서도 두 남자가 모두 기생과 먼저 성관계를 맺었다는 설정에서 동옥이 주장하는 순결 면에서 이들은 부정적인 등가 관계를 형성한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남성주인공인 박인철에 관해서는 간략한 사정의 요약 정도에 그쳐 심리적 친밀도가 감소하는 데 비해, 적대적 인물인 배일현의 성적 일탈은 여주인공 동옥의 사랑을 얻지 못한 데서 오는 반동임을 자세한 묘사로 제시하여 독자의 심리적 동조를 얻고 있다. 이러한 남주인공의 저하된 위상은 적대적 인물에 대한 이태준의 석연치 않은 태도와 함께 작가 의식이 변모하는 것을 말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²³⁾

결과적으로 <화관>에서 보여주는 작가 의식의 변모는 자본주의의 무조건적 거부에서 선택적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작가 의식의 변모 과정이 작품 내에 그대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화관>의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생활이란 것처럼 악착한 것인가? 조선사회란 종교나 예술같은 높은

23) 이호숙, 「이태준 소설의 이중욕망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1. pp.111-112.

문화일수록 그것만을 위해 살려는 사람에겐 생활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빈약한 사회인가? 그렇다면 내가 모르는 제 이 제 삼의 유목사나 오선생이 조선에 얼마나 많은 것일까! (중략) 뭐 돈을 벌어 가지고 하나님 나랄 건설하겠다. 돈을 벌어가지고 피아노를 치겠다. 그분들은 물론 그 길들이 좋겠지요. 그러치만 성경보다 피아노보다 더 절박한 걸 못 해결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라구요. 흥.. (『화관』, 95-98쪽)

이렇게 이태준은 <화관> 서사의 초기에는 박인철이라는 인물을 통해 ‘예술’과 ‘생활’은 공존할 수 없는 가치로 여기며, ‘생활을 위한 돈벌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은 동옥으로 하여금 박인철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는 ‘정신력’으로 이상화됨으로써 이러한 박인철의 가치관이 작가 이태준이 지향하는 가치관이라는 것을 드러내 준다. 또한 생활에 길들여진 예술가나 종교인이 다시 예술이나 종교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하기까지 하며 유목사나 오선생의 ‘정어리’ 공장을 비판한다.

단편소설 하나라도 적어도 수십 일 이상 노력이 없이 써지지 않는단 겁니다. 잘 써야 한 달에 하나 쓰는데 단편 하나 쓰면 겨우 수입은 십오륙원 내외랍니다. 그러니 그것만 믿고 살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 딱 직업을 갖지 않아요? 종일 딱 일을 하고 밤에 나와 끄적거리려 보니 그 끄적거리는 것만 놀라운 성의일 뿐, 좋은 작품이 나올 리가 있습니까?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십육년간을 썼다구 하니 조선에도 톨스토이 같은 천재가 있다 쳐도 십육년간을 먹고 살게 있어야 쓸 것 아닙니까?(중략) 전 첫째로 깨달은 게 출판사업입니다. 작가들의 생활을 작품에만 전력하게 어느 정도 보장해 주면서 십년을 계획해서 한 작품을 언더래두 이걸 계획해야겠구 또 출판비가 없어 출판 못하는 학문들 그리군 해독만 되지 않는 것이면 자꾸 배겨서 나뭇잎처럼 흔해서 누구나 읽게 누구나 지껄이게 퍼 들어야겠습니다. (『화관』, 340-341쪽)

이렇게 작품 후반에 나타나는 박인철의 생각은 이전에 자신의 입으로

비난했던 예술과 생활의 공존에 대한 생각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자신이 ‘출판사업’이라는 형태로 ‘문학가’의 생활을 지원해 줌으로써 조선의 문인들이 문학의 길로만 매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업에 대한 계획은 이미 자신이 ‘생활’에 뛰어들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문제인 것은 이러한 출판 사업을 주도할 자금력이 없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의 계획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박인철의 ‘출판사업’은 유목사나 오선생의 정어리 사업과 비교해도 훨씬 허황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허황된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이태준의 ‘돈’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모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태준의 후기 장편소설에 나타나는 ‘생활의 발견’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정신력을 가장 강조했던 박인철이 ‘생활’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돈의 의미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박인철의 경우는 사업 자금도 구하지 못한 채 ‘아득한 봄’만을 기다리는 것으로 작품은 끝이 난다. 이 점은 <화관> 이후의 작품으로 <화관>과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가진 작품으로 평가받는 <청춘무성>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화관>에서 보여주는 이태준의 인식 변화는 단순히 ‘변화’의 의미만을 가졌을 뿐이며 실천적 영역까지 그 사고가 확대되지 못한, 미숙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초기 장편과 <화관>의 초반 부분에 끊임없이 제기되던 ‘돈’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서 ‘생활의 가치’와 동질함을 수립하는 ‘돈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깨달음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정어리 공장’과 예술 활동이 병행될 수 없고, ‘정어리 공장’에서 돈을 벌며 목회의 길을 가겠다는 욕망이 허황된 것이라고 비판하던 박인철의 입장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배일현의 가치관 쪽에도 박인철의 변화된 논리 쪽에도 서지 못하고 있는 작가의 어정쩡한 태도가 <화관>에 그대로 드러

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화관’의 두 가지 상징성 중 한 부분인 ‘족쇄의 상징’으로써의 화관은 배일현에 의해 끊임없이 제공되는 속임수와 동욕을 향한 구속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구속의 의미는 ‘족쇄’로서의 화관이 ‘돈의 구속’이라는 측면과 연관됨으로써 작가 이태준의 심경의 변화를 표출하게 한다.

IV. 결론

이태준의 <화관>을 고대 ‘화관’의 두 가지 상징성을 바탕으로 분석한 본고의 논의는 고대 ‘화관’의 복합적인 상징성만큼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화관>의 숨겨진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본고는 <화관>의 두 가지 복합적인 세계를 ‘화관’의 상징성이라는 의미로 다시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성장의 플롯으로 읽어지는 <화관>의 모습에서 본고는 ‘화관’의 두 가지 상징성을 ‘신부가 쓰는 결혼 예식의 화관’과 ‘예수의 고난의 가시관’으로 형상화된 화관의 두 가지 모습을 통해 추출하였다. 이 두 가지 모습은 서로 상반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두 이미지 모두 ‘승배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상징을 가진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본고는 특히 주인공 임동옥이 ‘신부의 화관’을 추구할 때의 서사는 임동옥의 아름다운 육체에 대한 승배가 주를 이루는 데 반해, 임동옥이 ‘시대 사명’을 담당하겠다는 결심을 한 후 원산에서 교원으로 생활할 때의 서사는 동옥의 고귀한 정신에 집중되어 있으며, 승배의 대상 역시 시대의 사명을 짊어질 정신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화관’의 상징성 중 ‘족쇄의 상징’으로써의 화관의 모습은 주로 주인공

동옥과 악인형 인물 배일현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남을 보였다. 특히 이 부분은 <화관>의 예외적인 서술 형태인 배일현이 초점 대상이 된 서사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화관’의 변형된 형태인 족쇄의 의미가 상징화된 대상으로 배일현이 임동옥에게 선물했던 시계나 반지를 통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결국 이러한 족쇄의 상징은 ‘돈의 족쇄’라는 형태로 상징화 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본고는 배일현을 초점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족쇄의 의미를 완전히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못하는 작가 이태준의 모습에서 ‘생활의 발견과 수용’이라는 이태준의 변모를 추출할 수 있었다.

결국 <화관>이라는 텍스트는 이태준의 다른 작품들에서보다 훨씬 많은 작가의 고민과 머뭇거림이 드러나고 있는 인간적인 텍스트라고 할 수 있으며, 통속의 서사에 계몽의 내용을 담으려는 시도²⁴⁾라고 분석되었던 <화관>의 불안정성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본고는 보았다.

24) 김한식, 「계몽성의 약화와 비관적 현실인식」, 『화관』 해설, 깊은샘, 2001, p.374.

참고문헌

자료

이태준, 『화관』, 깊은샘, 2001.

참고 문헌

강진호, 「현대소설사와 이태준의 위상」, 『이태준과 현대소설사』, 깊은샘, 2004, 13-42쪽.

김종균, 「이태준 장편소설 <화관> 연구」, 『어문논집』 34호, 1995, 399-419쪽.

김주리, 「해변과 항구 - 바다의 근대적 공간 표상과 이태준의 <화관>」, 『한국현대문학연구』 28집, 2009, 173-204쪽.

김택호, 『이태준의 정신적 문화주의』, 월인, 2003.

김한식, 「계몽성의 약화와 비관적 현실인식」, 『화관』 해설, 깊은샘, 2001, 363-375쪽.

김한식, 「이태준 장편소설의 서사 연구」, 『이태준과 현대소설사』 깊은샘, 2004, 275-296쪽.

박헌호, 「이태준 문학의 소설사적 위상」,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7.

송인화, 「이태준 문학과 ‘예술 자율성’」, 『이태준과 현대소설사』 깊은샘, 2004, 43-70쪽.

송인화, 「이태준 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9.

송인화, 『근대소설과 여성 주체』, 예림기획, 2006.

이혜령, 「이태준 장편소설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6.

엄상희, 「1930년대 장편소설의 멜로드라마적 구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윤지영, 「이태준 장편소설의 이념적 지향연구」, 숙대석사학위논문, 2003.

- 이호숙, 「식민지 시대 남성작가의 욕망과 여성 주인공」, 『이태준과 현대 소설사』 깊은샘, 2004, 195-226쪽.
- 이호숙, 「이태준 소설의 이중욕망 연구」, 2001.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줄고, 「이태준 장편소설 연구」, 서강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 채호석, 「통속과 계몽, 그리고 제국의 논리」, 『이태준과 현대소설사』 깊은샘, 2004, 91-114쪽.
- 최현희, 「이태준의 <화관> 연구 - 좌절된 사랑과 왜곡되는 육체의 의미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3호, 2004, 91-316쪽.
- 황순재, 「이태준의 소설 <화관>론-현실대응 논리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인문논총』 50권, 1997, 173-188쪽.
- Frank Kermode, 「Secrets and Narrative Sequence」, *Critical Inquiry* Vol.7, No.1 Chicago, Autumn, 1980.
- Roberto Calasso, 『카드모스와 하르모니아의 결혼』, 이현경 옮김, 동연, 1999.

<Abstract>

The study of Symbolism of *Hwagwan* by Lee Tae-jun

Kim, Eun-jung*

This study aims to analyze *Hwagwan*(the Coronet) by Lee Tae-jun on the basis of two symbolisms of the ancient coronets, and to explain the complex world of this work on the basis of the coronet's symbolism. The frame of authority is the theory of Frank Kermode, who claimed that there are two plots, the plot as foreground and the plot of secret as background.

The symbolism of *Hwagwan* which is possible to be understood as the plot as foreground was derived from the two images, *the coronet of bride and the crown of thorns of Jesus*. These two images are contradictory each other, but have the same properties in that they all are *the objects of admiration*.

The image of coronet as the plot as background is a symbol of *restriction*. This symbolism appears centering around the narration of Bae Il-hyeon, the character of villain type. So we drew this symbolism from the images of the watch or ring which Bae Il-hyeon presented to Im Dong-uk. We regarded their meaning as the images of *restriction of money*, and from the meaning of this restriction, we were possible to extract the transfiguration of Lee Tae-jun, that is, *the accommodation and discovery of life*. Moreover, we can find the

* Kyungnam Universty

reason why Hwagwan is left as incomplete text.

Key Words : coronet, symbol of admiration, coronet of bride, crown of thorns, symbol of restriction, money, accommodation and discovery of life

■ 논문접수 : 2014년 6월 30일

■ 심사완료 : 2014년 8월 29일

■ 게재확정 : 2014년 8월 30일